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9월 2일(목) 총 5매		
담당 부서 인천문화예술회관	담당 자	•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420-2710 • 담 당 자 정수산나 ☎420-2736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질 때까지 춤추는 무용수들,
그 질주에 담아낸 삶을 향한 헌사
- 9.10 인천시립무용단 <꼰대(ft.더 클래식)> 온라인 상영 -

온 몸이 부서질 때까지 혼신을 다해 춤추는 무용수들이 춤사위가 우리를 찾아온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 10일 2시, 인천시립무용단의 기획공연 [인사이드 아웃 Inside-Out] ” 이 온라인 중계로 관객들을 찾아온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한 온라인 중계공연 <문화백신>의 일환인 이번 공연 영상은 9월 10일(금) 오후 2시에 최초 공개된다. 인천시립무용단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유튜브, 네이버TV 채널 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기획공연 [인사이드 아웃 Inside-Out]

인천시립무용단의 기획공연 [인사이드 아웃 Inside-Out] 은 안무가로서

능력을 갖춘 단위들의 기량을 펼쳐 보이는 기획이다. 신선한 시각과 새로운 춤 언어의 개발을 통해 단체의 새로운 레퍼토리 공연으로 지속할 만한 작품을 키워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인천시립무용단은 2017년부터 <산-64번지>, <월정명-달빛나나니>등의 작품을 배출했고, 올해 신작 <꼰대(Ft. 더 클래식)>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안무자 박성식의 새로운 도전

올해는 관록의 주역무용수이자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안무자로 손꼽히는 박성식 단원이 [인사이드 아웃 Inside-Out]에 선정되었다.

인천시립무용단의 대표작 <만찬-진, 오귀>에서 박수무당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믿고 보는 춤꾼’으로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낸 박성식 단원은 2008년부터 4년 연속 인천의 연말을 빛냈던 <호두까기 인형>에서 호두까기 역을, 한국적 댄스컬로 주목 받았던 <풍속화첩-춘향>에서 변학도 역을 맡아 차별화된 춤 연기를 선보이며 명실상부 인천시립무용단의 주역무용수로 활약해왔다.

2009 PAF 춤연기상 수상 등으로 무용수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박성식 단원은 이에 멈추지 않고 창작 활동에 도전, 2014 인천무용제 대상, 전국무용제 은상, 2015 인천무용제 대상 수상 및 2019 서울무용제 개막 공연 안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무가로서의 입지를 쌓아왔다. 이제 그간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작품 <꼰대 (Ft. 더 클래식)>으로 단단히 다져진 안무가로서의 작품 세계를 펼쳐내고자 한다.

쏟아 아닌 클래식이 되기 위해 끝없이 춤추는 모두의 이야기

박성식 안무 <쏟대 (Ft. 더 클래식)>은 코로나 시대를 견고 있는 공연 예술인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생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역경,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안무자의 시선을 담은 작품이다.

안무자는 평생 춤을 추는 무용수들의 삶에 빗대어 각자의 어려움을 딛고 버티고 버텨 만들어진 지금의 모습을 쏟아라는 자조가 섞인 표현으로, 그러나 한 편으로는 클래식이라는 자부심 가득한 이름으로 그려낸다.

‘쏟대’라는 타이틀에서 연상되는 B급 정서, 혹은 세상을 향한 반어법적 시니컬함과는 달리 작품은 생경하지만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의상, 손끝까지 계산된 움직임과 무대 구성을 통해 자아내는 정제된 이미지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무용가’의 이미지를 무대 위에 구현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눈앞에 펼쳐내기 위해 무용수들이 감내하는 신체적, 정서적 고통과 인내를 작품의 서브 구조로 동시에 풀어가며 두 개의 층위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 혹은 작품이 ‘클래식’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수많은 시련과 그에 따른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생의 가치를 그린 이번 작품은 인천시립무용단 단원들로 대표된 무용인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보인다. 하지만 그 헌사의 대상은 비단 무용인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로 소급된다.

온라인 상연을 넘어 댄스필름으로

연초부터 준비해온 공연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작품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무용수에서 안무자로서의 변신과 더불어 무대에서 스크린으로 자리를 옮긴 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2021년의 [인사이드 아웃 Inside-Out]은 안무가로서의 새로운 도전이자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공연예술가로서 새로운 길을 향한 도전이었다.

무용수들이 무대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와 무대 위의 감정이 객석에 동화되는 그 순간의 전율은 오직 공연장에서 무용수와 관객이 함께 ‘겪어야’만 취득되는 것이다. 현장성을 잃어버린 온라인에서 관객이 조금 더 작품과 동화되어 그 순간을 ‘겪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영화적 기법을 도입하고, 온라인에 부합하는 공연 장면을 안무하되 무대 예술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탐구와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상연을 넘어 춤이 무대와 화면을 오갈 수 있도록 구성한 댄스필름으로써, 영상 역시 영화 화면비율로 제작하고 화면 연출과 색감 등 영상의 요소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대 곧대여, 삶의 꽃을 피워라! 클래식이 되는 그 순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공연장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핸드폰으로, 모니터로, TV로, 크고 작은 화면 속에서 무대 위 무용수들의 삶은 또 다시 이어진다. 공연을 하는 무용가 뿐 아니라 가게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도, 방역 최전선의 의료진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모두의 삶에는 자신만의 시련이 있다. 코로나가 증폭시킨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결국 이 삶을 이어나가는 카타르시스의 한 순간을 이번 공연과 함께 경험해보시기 바란다.

인천시립무용단 기획공연

< Inside-Out : 폰대(ft.더 클래식)>

- ☐ 송출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후 2시
- ☐ 송출채널 : 인천시립무용단, 인천문화예술회관 유튜브&네이버TV
- ☐ 공연문의 : 인천시립무용단 032-420-2788

<붙임> 관련 사진

	
포스터 이미지	공연 사진



공연 사진



공연 사진